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ACK
가제 : 돌아온 아이
저자 : S. K. Barnett
출판사: Dutton
발행일: 2020년 5-6월
분량 : 약 455 페이지
장르 : 심리 스릴러

*** 드림웍스와 영화 판권 계약 / 영국, 스페인 판권 계약**

화창한 여름 날 대낮에 바로 두 집 건너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간다고 집을 나선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엄마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와서 딸아이 제니가 토니네 집 쪽으로 신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다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 순간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흉흉한 동네도 아니고, 중상류층 가정이 밀집한 평온한 동네에서 해가 쨍쨍한 대낮에 여섯 살짜리 아이가 목격자 하나 없이 사라지다니,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전단지가 곳곳에 붙고 신문과 TV 뉴스에서는 매일 제니 크리스탈의 사진과 함께 간절히 딸을 찾는 부모 로리와 제이크의 모습이 등장했다. 평소에 제니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수색대를 꾸려 인근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제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니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어느 날, 조용한 동네는 또 다시 발칵 뒤집힌다. 제니가 돌아온 것이다.

훌쩍 자란 열 여덟 살 소녀가 된 제니는 집이 있었던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한 여성과 마주친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놀라운 뉴스였던 제니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그 주민은 어릴 때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제니를 보고 기겁한다. 기억력과 눈썰미 좋은 이 여성의 신고로 곧장 경찰서로 가게 된 제니는 형사 앞에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제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던 낯선 부부와 함께 살았고, 그들은 제니를 “조베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제니의 진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은 다 잊도록 강요했다. 엄마 아빠는 널 원치 않았다고, 바로 그 사람들이 널 데려가라고 했던 거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키던 납치범들에게서 겨우 도망쳐서 다시 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니는 형사의 요청대로 납치를 당하기 전에 진짜 부모님과 살았던 시절의 기억도 힘들게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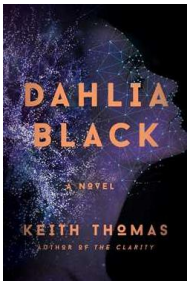
잊으라는 강요 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 애를 써서 남겨둔 기억들, 다섯 살 때 온 가족이 디즈니랜드에 갔었고 오빠 벤이 여러 번 큰 사고를 당했던 일들까지 단편적으로 아직 제니의 머리 속에 남아 있었다. 몇 시간 뒤, 형사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부모님과 12년만에 재회한 제니는 반가움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어색함을 느낀다. 펑펑 울기만 하는 엄마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제니는 잃어버린 12년의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이제라도 보상 받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제니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납치범을 찾아야 한다며 계속 질문을 해대는 경찰이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딸을 되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만으로는 심심하다고 느낀 언론들도 뭔가 자극적이고 비밀스러운 양념으로 곁들일 만한 뉴스를 찾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제니의 가족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사람은 오빠 벤이었다. 제니의 파편처럼 남은 기억 속에서도 벤은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겪었다. 다같이 동굴 탐험을 하다가 혼자 길을 잃어서 겨우 구출된 적도 있었고, 바다에서 제니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고꾸라져 익사 직전에 구조된 일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이 실종되어 괴로워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으니, 스무 살이 되고도 여느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벤이 유령에라도 홀린 사람처럼 멍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니는 오빠에게 뭔가 자신이 모르는 큰 일이 있었음을 감지한다. 펜베이커라는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제니는 벤의 알 수 없는 변화가 자신의 실종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12년 전 딸이 실종된 후 로리와 제이크 부부가 고용한 사립 탐정이었던 펜베이커는 은퇴 후 미해결 사건을 전문적으로 파헤쳐온 전직 형사였다. 단서 하나 없었던 제니의 실종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그가 알아낸 것은 무엇일까? 시종일관 제니의 시선으로만 이어지던 이야기에 벤의 시선이 더해지면서 소설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거의 매일 밤, 옷장에 갇혀 발버둥치는 악몽에 시달리다 땀을 흘리며 잠을 깨는 벤은, 제니가 사라진 날 아침 지하실의 허름한 옷장 속에 자신이 실제로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안개처럼 뿌옇게 변색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 날 제니는 새벽에 잠에서 깨서 벤의 방으로 찾아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었다. 제니가 숫자를 세는 동안 벤은 지하실의 옷장 속에 숨었고 제니는 낄낄대며 밖에서 옷장 문을 잠근 후 캠핑할 때 배웠던 대로 옷장 앞에 불을 피워 벤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 전에 동굴에서 길을 잃었던 일이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도 사고가 아니라 천사처럼 작고 예쁜 여동생이 저지른 일임을 아는 벤은 몸이 부서져라 옷장 문을 밀었고, 연기에 숨이 막히기 직전 겨우 탈출했다. 그리고 머리 끝까지 분노로 가득 차 제니 방으로 달려간 벤은 벌컥 열어젖힌 방문 뒤에서 보지 말았어야 할 광경을 목격하고 만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며 거짓과 비밀 뒤에 숨어 사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그린 놀라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S.K. 바넷(S.K. Barnett)은 제임스 르제이스(James Legeis)의 필명이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로 방송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다.



제목 : DAHLIA BLACK
가제 : 달리아 블랙
저자 : Keith Thomas
출판사: Atria/Leopoldo & Co.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SF 소설

*** TV 시리즈 제작 예정 – 에미 상 후보 출신 프로듀서와 계약 체결**
*** "강렬한 데뷔작. 탄탄하게 휘감긴 이야기 전체가 진행되는 내내 신빙성이 유지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팽팽한 줄거리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후 세계와 부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눈길을 사로잡는 소설" – Book Riot**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 표면에 착륙한 것으로 시작된 인류의 본격적인 우주 탐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주 공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인류 외에 다른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출간 전에 TV 시리즈 제작이 확정된 이 데뷔작에서 저자는 우주의 또 다른 존재가 실제로 나타나 그들로 인해 인류 전체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작가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기자 키스 토머스를 소설의 서술자로 세워 현실감을 높인다. 외계 생명체의 첫 등장 후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키스 토머스가 일련의 사태를 취재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독특한 소설은, 우주에서 전해진 낯선 신호를 최초로 포착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든 천문학자 달리아 미첼이 바로 전 지구적 변화의 핵심이자 시초였다는 중대한 사실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달리아 미첼이 암호화하여 숨겨둔 방대한 일기, "최후의 날"이라는 비극적인 이름이 붙은 사건을 지켜보고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FBI 등 정부 기관이 미첼 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과 조사 기록, 미첼 박사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소설로 취급하거나 조작이라고 의심했던 동료들과의 대화 등 기자가 23개월에 걸쳐 취재하고 정리한 결과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사실을 처음 깨닫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특별한 과학자의 고투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취재 형식이라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재미 있는 구성과 외계 생명체와 인류의 관계에 관한 참신한 해석이 두드러지는 소설이다.

2028년에 세상에 나온 키스 토머스 기자의 책은 최후의 날이 찾아온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은하계와 다른 은하계 사이의 어떤 공간에서 온 신호를 달리아 미첼이 처음 집어낸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암흑물질을 연구 중이던 미첼 박사는 직업 군인이던 아버지를 따라 세계 여러 나라로 이사를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십대 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엄마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공부에 더 빠져들었던 안타까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철저하고 작은 것 하나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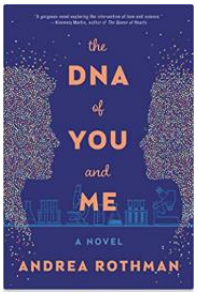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편이라 우주에서 날아온 낯선 메시지에 대해 누구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것이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가 보낸 일종의 코드라는 사실, 인류가 1977년 우주로 날려 보낸 보이저 1호를 시작으로 무한한 우주 공간에 꾸준히 전해왔던 다른 생명체를 향한 메시지들이 흩어져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첼 박사는 암호 같은 이 메시지를 풀어 보리라 마음먹는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거 남자친구였던 미 안보부 정보분석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해독에 성공한 미첼 박사는 스스로를 "선조들"이라 칭하는 외계 생명체가 그저 인류와 인사나 나누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이 보낸 것은 인간의 DNA를 해킹해서 만든 결과물로 DNA를 변형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기술이었다. 그들은 전 인류의 30 퍼센트를 자신들이 만든 외계 코드 "펄스"로 변형시켜 "고결한 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수립했고, 달리아 미첼이 처음 수상한 신호를 감지할 즈음 이미 펄스는 지구 곳곳에 파고들기 시작한 이후였다. 안보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연방 정부의 시선을 끌게 된 미첼 박사는 이 사실을 거듭 설명하고, FBI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미첼 박사의 주장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기괴한 능력이나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이 자꾸 발견된다는 보고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의혹과 불신만 키우다 무려 30억 명의 지구인이 사라지는 "최후의 날"을 자초하고 만다.

펄스 코드에 노출되어 DNA가 변형되고 "고결한 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름과 맞지 않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유전자 변형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일반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중력파와 자외선이 피부에 와 닿는 것과 지구의 움직임까지 온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지 못한 인체는 말 그대로 허물어졌다. 몸이 멀쩡한 경우에는 정신이 나가버리기도 했다. 쏟아지는 감각을 피하기 위해 은둔해버리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달리아 미첼은 외계 생명체가 갑자기 지구인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벌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고결한 자로 변한 사람들이 외계 행성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고 지구의 소중한 이들 곁을 떠나려고 하면서 전 지구가 혼란에 빠지자 이를 중재하려 애쓰기도 했다. 소설 속 기자는 가까운 사람의 유전정보가 변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나머지 70 퍼센트의 생존자들 시선에서 이 모든 사태를 따라가며 달리아 미첼이 일기로 남겨둔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재구성한다. 인류의 생사가 걸린 변화를 처음 인지한 과학자가 겪은 엄청난 일들을 통해 인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먼지처럼 미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사실적으로 그린 놀라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키스 토머스(Keith Thomas)는 콜로라도 의과대학과 국립 유대인보건원에서 임상 연구자로 일하다가 영화, TV 각본가가 되었다. 소설가 제임스 패터슨과 공동으로 각본과 소설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웹사이트「Geek」, 「McSweeney's」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DNA OF YOU AND ME
가제 : 너와 나의 DNA
저자 : Andrea Rothma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9년 3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로맨스 소설



*** 2019년 라티노 북 어워드(Latino Book Awards) 최우수 인기 소설 부문 후보로 선정**
*** "예리한 데뷔작. 치열한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달콤하고 씁쓸한 러브스토리. 외로움과 가슴 아픈 경험, 용서에 관한 작가의 탐구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여성의 야망에 관한 시급한 질문을 던지는 참신한 이야기" – 「리얼 심플」**

누군가 자신을 "외골수에 야망 넘치고 모든 걸 철저히 혼자 다 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에밀리는 이제 막 첫 발을 들인 저스틴 맥키논 교수의 연구실에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정확한 사실이었고 그게 문제가 된다거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맨해튼 일대에서 손꼽히는 신경과학 연구실의 일원이 되어 코로 유입된 후각 정보가 뇌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그 경로를 파헤칠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에밀리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그게 어떤 냄새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코의 후신경과 연결되는 뇌의 신경세포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DNA에 켜켜이 저장된 생물의 정보를 찾아내는 생물정보학자로 박사 과정까지 마친 에밀리에게는 이제 맥키논 교수의 연구소에서 그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는 열망만 가득했다. 사람들과 둘러 앉아 수다를 떠는 것보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실험실에서 현미경과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수천 배는 더 좋았다. 친구를 잘 사귀지도 못했지만 별로 아쉬울 것은 없었다. 첫 출근 이후 맥키논 교수에게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생이 두 명 더 있었고 그들이 거의 같은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경쟁 상대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에밀리가 크게 놀라지 않은 건 그런 성향 때문이었다. 어차피 사람에 대한 정이 별로 없었던 에밀리로서는 필요하다면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는 그런 마음이 사람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확고히 바뀔 수 있음을 깨닫는다. 철저한 경쟁 상대이자 연구실 동료인 에이든에게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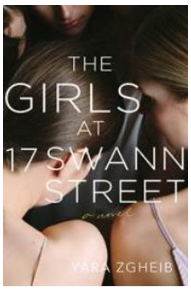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연구실을 만들고 논문과 학위를 위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에밀리의 최종 목표였다. 그런 그녀가 맥키논 교수를 스승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 때문이었다. 에밀리가 찾으려는 유전자, 즉 후각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유전자를 찾으려면 그가 보유한 이 막강한 자료가 반드시 필

요했다. 하지만 연구실의 새로운 식구가 된 직후, 에밀리는 맥키논 교수와 함께 이미 3년째 연구 중인 에이든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 역시 바로 그 유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릴 때부터 과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자를 꿈꾸며 지금까지는 별다른 장애물이나 어려움 없이 달려왔던 에밀리가 처음으로 과학 연구의 피 말리는 경쟁을 제대로 맛본 순간이었다. 혁신적인 결과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야 하고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먼저 최대한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 자신이 그 숨막히는 질주에 뛰어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비슷한 연구를 하는 전 세계 다른 연구실은 물론 바로 옆에서 함께 실험하는 동료들과도 쉴 새 없이 겨루며 수없이 밤을 새야 하는 환경 속에서도 에밀리는 특유의 강인함과 독단적인 추진력으로 빠르게 적응한다. 그러나 서로의 역량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강렬한 적대감으로 서로를 대하던 에이든과 에밀리는 시기심과 질투의 바득바득 이가 갈리던 그 뜨거운 감정들이 서서히 또 다른 열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 에밀리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만큼 큰 관심을 쏟고, 그의 눈길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심지어 그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꾸게 된 것에 깜짝 놀란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 계산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에밀리의 가슴에도 누군가를 애타게 바라고 원하는 감정이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같은 목표로 경쟁하는 사이인 만큼 두 사람의 사랑은 예상대로 원치 않는 비극을 향해 흘러간다.

에밀리가 월등한 성과를 거둘수록 에이든은 더 뒤로 쳐지고 한 발 늦은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맥키논 교수는 에이든을 에밀리의 동료가 아닌 보조연구원으로 격하시킨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는 철저한 경제적 원칙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에이든을 향한 에밀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크게 상처 입는 일도 일어난다. 에이든의 부모님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마음에 없는 말을 못하는 에밀리는 말하기 싫을 땐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곤란한 질문에도 주저없이 자기 생각을 밝히는 등 뭇 어른들이 기대하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여성의 태도와 거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런 아이는 남편이고 연인이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아”라고 아들에게 속삭이는 에이든 엄마의 말을 우연히 들은 에밀리는 맥키논 교수가 자신을 처음 소개하는 것을 들었을 때처럼 덤덤하게 넘기지 못한다. 에이든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미래는 어쩌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까? 과연 내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회의와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에밀리의 연구는 나날이 진척되지만 에이든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그가 맥키논 교수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자 에밀리는 갈림길 앞에 선다. 결실이 코 앞으로 다가온 연구를 모두 포기하고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에이든의 손을 잡아야 할까?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야망과 욕구, 가족과 직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현실을 독특한 소재로 날카롭게 분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안드레아 로스먼(Andrea Rothman)은 록펠러 대학교 신경생물학 연구실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던 중 작가로 전향했다. 버몬트 칼리지에서 문예창작 예술석사 과정을 마치고「리트로 매거진」,「아발론 리터러리 리뷰」 등에 소설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GIRLS AT 17 SWANN STREET
가제 : 스완 스트리트 17번가
저자 : Yara Zgheib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2월 5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프랑스(pre-empt), 이탈리아, 스페인 판권 계약 / 초판 10만 부 발행**
*** 피플 매거진 2월의 책으로 선정 –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순수한 용기, 자신을 도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든 힘을 찾는 과정을 흡입력 있게 그린 이야기"**
*** "공동체와 작은 몸짓 하나에 생명을 구하는 힘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분홍빛 벽지와 샛노란 색의 가구들이 경쾌하게 맞이하는 스완 스트리트 17번가의 건물 안에는 그 활기찬 색깔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창백한 피부와 뼈만 앙상하게 남아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에 윤기가 전혀 없는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이겨내려 이 밝고 명랑한 색으로 덮인 공간에서 고군분투를 벌인다. 안나는 남편 손에 이끌려 5주간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5호실에 처음 들어선다. 침대도 네 개, 옷걸이도 네 개, 모든 것이 네 개씩 준비된 방에 간소하게 챙겨온 짐을 풀면서 안나는 남편 매티어스 옆에서 자신이 온 입에 초콜릿이 묻은 채로 활짝 웃고 있는 결혼식 날의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 놓는다. 느지막한 오후면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고 6월이면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꼭 챙겨 먹었던 시절, 진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콘을 무엇보다 사랑했고 크레페와 자허 토르테 케이크는 누구보다 잘 만든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낯선 미국, 낯선 병원의 4인실에 막 들어온 스물여섯 살의 안나는 불과 몇 년 전 사진 속 자신을 스스로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성마른 사람이 된 안나는, 늘 허기에 시달리면서도 음식을 입에 넣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극심한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 3년 간 조용히 기다려왔던 남편은 결국 안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다.

안나가 아예 손 대지 않는 음식들이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초콜릿, 그 다음은 치즈, 이어서 감자튀김과 아이스크림이었다. 빵은 좀 더 힘들었지만, 안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체중을 조금만 더 줄이면 큰 무대에서 혼자 마음껏 춤추는 솔로 공연의 기회가 생길지도 몰랐다. 몸이 조금만 더 가벼워지고 그래서 발레가 더 잘 되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오늘은 딱 1마일만 더 뛰면, 체중이 1파운드만 더 줄면 그런 꿈이 다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파리에서 전문 무용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때 안나의 머릿속에는 발레리나로 성공한다는 꿈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로 식단을 조절하고 연습에 매진하면서 조금씩 그 꿈을 위해 다가가던 중 안나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티어스를 만나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푹 빠져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크게 다쳐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비참한 일이 한꺼번에 덮쳐 혼란에 빠진 안나는 매티어스가 일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지만 꼭 같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선뜻 그의 손을 잡는다. 그렇게 파리에서 미주리 주로 건너 간 안나는 무대에서 가장 행복하던 댄서로서의 생활을 접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 매티어스를 향한 사랑도 아내를 향한 매티어스의 사랑도 변치 않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안나는 거의 매일 혼자였다. 낯설지만 그리 싫지만은 않은 도시에서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며 살고 싶었지만 그 꿈조차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불안하고 예민해진 안나는 자신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얻었지만 안나 루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는 자괴감과 도저히 가시지 않는 외로움 속에 안나는 서서히 우울증과 거식증의 늪으로 빠져든다. 165 센티미터가 넘는 키에 체중이 40 킬로그램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자 안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던 그녀는 며칠에 한 번 미소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다 결국 어지러워 쓰러진 안나를 발견한 매티어스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아내의 불안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스완 스트리트 17번가에 있는 거식증 전문 병원으로 안나를 데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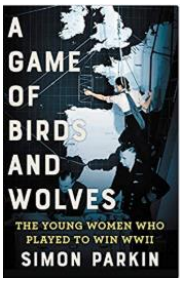
거식증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어때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데? 안나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마지 못해 병원 생활을 시작한다. 안나는 공식적인 진단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치료도 다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같은 입원실을 쓰게 된 여성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안나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한다. 올림픽 선수 출신이자 5호실의 방장 격인 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 모두의 선망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끝없는 고문에 시달리듯이 살아온 발레리, 그리고 쉴 새 없이 먹어야 하고 늘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줄리아는 모두 다 자신들만의 사연이 있었다. 안나는 자신과 배경도, 나이도, 성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들 속에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한다. 둘도 없는 친구이자 조언자가 된 이들은 안나에게 삶을 포기하면 안 되며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킨다.

작가는 안나의 생각과 심정을 조용히 따라가면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만이 느끼는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크림치즈가 발린 베이글 반쪽을 삼킬 때 이들이 겪는 고통, 목구멍에 무언가가 넘어가는 느낌이 혐오감으로 바뀔 때 광기처럼 솟구치는 불안,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심적인 스트레스가 주는 또 다른 죄책감,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늘 남아 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안나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현실감을 잃지 않는 희망을 시적이고 유려한 글로 풀어낸 데뷔작이다.

<저자 소개>0

야라 게이브(Yara Zgheib)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안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파리 외교전략센터에서 국제외교 박사과정을 마쳤다.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능통해 미국과 유럽의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NON-FICTION



제목: A GAME OF BIRDS AND WOLVES
가제: 코드네임; 새와 늑대
(부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젊은 여성들)
저자: Simon Parkin
출판사: Spectre (UK), Little, Brown and Company (US)
발행일: 2019년 11월 11일 / 2020년 1월 28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역사

*** 영화 판권 계약**

*** 2차 대전 대서양 전투에서 열세에 몰린 영국 해군에 뜻밖의 승리를 가져다 준 비밀 작전 – '보드 게임'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여덟 명의 여성 해군**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윈스턴 처칠은 대서양 전투가 영국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영국군이 사용하는 연료의 95 퍼센트, 식량의 75 퍼센트가 상선을 통해 대서양을 가로질러 보급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독일군은 U보트로 알려진 잠수함 함대로 보급선을 맹공격했고 안타깝게도 거의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기세로 독일군의 공격에 당한다면 최악의 경우 3개월 안에 항복해야 할 판이었다. 영국군이 이런 수세에 몰려 있다는 사실과 독일군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영국 해군이 그 공격에 얼마나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는지는 고위직 정치인과 군 간부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결국 처칠은 당시 마흔한 살이던 해군 총독 길버트 로버츠를 은밀히 불러들인다. 해군의 막대한 전술 실패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인을 밝히라는 지시를 받고 물러난 로버츠는 리버풀에서 특별한 그룹을 형성한다. "렌(WREN)"으로도 알려진 여성 해군 여덟 명으로 꾸려진 이 작은 그룹은 본격적으로 해군이 참패한 전술적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이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보드 게임이었다. 장판이 깔린 바닥에 페인트로 구역을 세분화하고 미니어처로 제작한 모형 선박을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재연한 것이다. 흡사 아이들이 게임 판을 펼쳐놓고 주사위를 던지고 말을 움직이듯 영국군과 독일군의 배를 하나씩 배치하고 움직여가며 전투 게임을 벌인 이 색다른 시도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패하던 영국군이 분위기를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저술가이자 기자인 저자는 길버트 로버츠가 남긴 일기와 당시에 발행된 신문들,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자료와 살아 있는 렌 출신 군인들과의 인터뷰 등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독일군을 최종적으로 물리치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새와 늑대 게임"을 소개한다. 당시에는 게임 디자이너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가장 초기 형태의 게임 디자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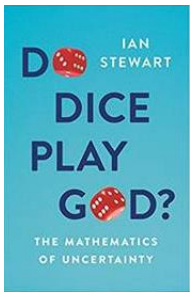
성공적으로 이끈 길버트 로버츠는 자칫 장난처럼 보이는 이 전투 게임을 통해 “라즈베리 작전” 등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다양한 전술을 개발했다.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열의에 넘치던 영리한 젊은 여성 해군 여덟 명과 함께 로버츠가 늑대 떼라고도 불리던 독일 잠수함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개발한 어뢰 공격과 수중 도주로 확보 방안 등 기발한 전술은 종전 후 직접 독일을 찾아 독일 해군이 보유한 자료와 그 공격의 실제 표적이었던 U보트 해군들과의 면밀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저자는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성과 인내를 에너지 삼아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상상이 현실에서 살아 숨쉬게 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낳게 된 놀라운 과정을 실감나게 들려준다.

<목차>

I. 최후의 승자
1부.
II. 작별의 손짓처럼
III. 그들이 온다
IV. 늑대들
V. 파인애플과 샴페인
VI. 바다에서 절대 불가능 한 것
2부.
VII. 로버츠
VIII. 오크 나무의 잎과 크리스마스 트리
IX. 에이스, 그리고 메모
X. 요새
XI. 라즈베리
XII. 왕궁의 열쇠
3부. (13-19장)
덧붙이는 말 / 맺음말

<저자 소개>

사이먼 파킨(Simon Parkin)은 여러 잡지와 신문, 웹사이트에 글을 제공해 온 저술가이자 기자다. 「뉴요커」, 「가디언」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으며 「옵저버」 지 게임 분야 비평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Death by Video Game』이 있다.



제목 : DO DICE PLAY GOD
가제 :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저자 : Ian Stewart
출판사: Basic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수학

* **"저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학적 틀을 활용하여, 이 세상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엄청난 불확실성과 함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능숙한 솜씨로 설명한다. – 『Fluke: The Math and Myth of Coincidence』의 저자 조셉 마주르**
* **"모든 독자들이 전문가가 분석한 이 확률 이야기에서 귀중한 정보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얻게 될 것" – 「커커스 리뷰」**

일기예보가 맞는 날보다 화가 치밀만큼 틀리는 날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날씨를 미리 확인한다. 중요한 축구 경기가 열리면 어느 편이 이길지 며칠 전부터 예상하고 선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서 한몫 벌기 위해 틈틈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다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정확하거나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미리 좀 더 분명하게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류 역사에서 늘 존재했던 이 열망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법, 즉 실제 일어날 결과에 더욱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타로 카드, 별자리 점을 넘어 내장, 특히 간을 보고 어떤 징조를 읽어 낸다던가, 찻잔에 흩어진 차 잎의 모양으로 앞날을 내다보려 한 것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수학자인 저자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또는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 위한 경쟁 때문에, 혹은 도박에서 더 큰 돈을 따야 한다는 열망이 불씨가 되어 무수한 수학자와 과학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과는 점을 보거나 '촉'을 믿는 각종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된 결과보다 당연히 더 정확할까?

저자는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열렬히 소망해도 확률은 절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며 수학을 동원한다 해도 인간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는 진실을 가감없이 설명한다. 통계적 추론, 불확실한 경우를 모두 배제하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기존의 노력들을 살펴보면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일들이 다 밝혀진 세상이 와도 절대 풀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인간이 가진 직관력에 너무 기대지 않고 불확실성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지 받아들인다면 수학을 유용한 툴로 삼아 조금은 더 편리하게 앞날을 예측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넘어서고 쟁취하기 위해 쉼 없이 애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특성임을 여지없이 입증해보이는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통해 대책 없는 인간의 예측 능력을 가차 없이 꼬집고,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무모한 확신이 그저 노름에서 돈을 잃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통계학이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무고한 사람에게 살인죄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입덧이 심할 때 먹는 약으로 유행하던 탈리도마이드가 얼마나 유해한 약인지 그 위험성이 통계학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다는 사례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수학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확한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까다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학과 확률의 이야기를 친근한 상황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잘 풀어서 설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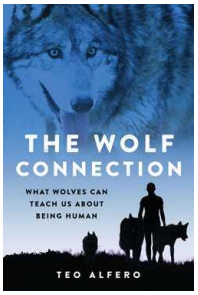
<목차>

1. 불확실성과 여섯 번의 시대
2. 내장에서 암시를 읽어내다
3. 주사위 굴리기
4. 동전 던지기
5. 너무 과한 정보
6. 오류와 역설
7. 사회적 물리학
8. 여러분은 얼마나 확실한 사람입니까?
9. 법과 무질서
10. 예측 가능한 것을 예상치 못하는 것
11. 날씨 공장
12. 구제책
(이하 생략, 총 18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이언 스튜어트(Ian Stewart)는 영국 워릭 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자 『Stewart's Cabinet of Mathematics Curiosities』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저술가다. 최근에 쓴 저서로는 『Significant Figures』, 『Incredible Numbers』, 『Seventeen Equations that Changed the World』 등이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ncredible Numbers' 제작에도 참여했다.

제목 : THE WOLF CONNECTION
가제 : 늑대와 인간
저자 : Teo Alfero
출판사: Atria/Enliven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25월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과학, 생태학/자기 계발



* **"고대부터 이어진 늑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간이 늑대를 돕고, 늑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멋진 책" – 영화배우 헬렌 헌트**
* **"인간뿐만 아니라 늑대의 정신과 의미, 정서가 꽉 차 있는 책" – 야생 생물학자, 옐로스톤 국립공원 늑대 보존 프로젝트 리더 더글러스 W. 스미스(Douglas W. Smith)**

먼 옛날부터 야생에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던 동물이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스승인 늑대는 전 세계 무수한 신화와 이야기에 등장한다. 일본의 아이누 부족, "퍼스트 네이션"으로 알려진 아파치 원주민들은 늑대를 숭배하기도 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다양한 야생 동물과 교류하고 생존을 위해 서로 의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늑대와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에 다치거나 고립되어 위험 상황에 처했다가 구조된 수십 마리의 늑대를 우연히 맡아 기르면서 늑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얻었다는 저자는 이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동물들과 가까이 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감이 솟는 특별한 기분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 뿐만 아니라 늑대 돌보는 일을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소통 능력과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대인 관계 능력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자는 동물 매개 치료의 하나로 "늑대 테라피"를 개발했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과 중독,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늑대와 직접 만나고 교감하면서 어떠한 약이나 치료로도 얻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 효과를 얻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인류가 맨 처음 친구가 된 동물인 늑대가 인간이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가장 내밀한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과 역사, 문화 속 늑대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위풍당당하고 영리한 이 늑대라는 특별한 동물이 자의 혹은 타의로 끊어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잇고 세상과의 유대를 회복시키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설은 물론 행동과학, 생물학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늑대로부터 수많은 기술과 전략을 습득했으며 이것이 인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는데 큰 기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냥은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 자기 아이가 아니라도 같은 공동체에 속한 어린 아이를 함께 돌보는 등의 뛰어난 정서 지능, 상대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 인간 본연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이 기능들은 모두 늑대와 어울려

지내면서 자연히 습득한 것이다. 저자는 먼 옛날 인류에게 가르쳐준 이 능력을 그대로 지닌 야생 늑대와 늑대개가 인간 관계에서 큰 고통을 얻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더불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발휘하도록 하며, 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늑대와의 교감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저자가 늑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생물학자들과 원로 원주민들에게 배운 지혜를 종합하여 개발한 "열두 가지 늑대 원칙"도 소개된다. 늑대가 인간과의 유대를 통해 직관력을 일깨우고 보다 진정성 있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기능을 요약한 원칙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훈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지지만 차츰 감탄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늑대와의 만남으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효과와 늑대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행동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울프 커넥션에서 울프 테라피까지
왜 늑대와 늑대개여야 할까?
두려움을 넘어 한 걸음 더: 미코와 니나
늑대가 사는 아홉 개의 영역
영역 1 – 자연의 심장이 깨어날 때
영역 2 – 늑대 대사
영역 3 – 고대의 늑대
영역 4 – 야생 늑대
영역 5 – 인간과 늑대
영역 6 – 우주와 늑대
영역 7 – 신화 속의 늑대
영역 8 – 의식과 늑대
영역 9 – 늑대와 교감하는 나만의 방법

<저자 소개>

테오 알페로(Teo Alfero)는 늑대 보호구역 "울프 커넥션"의 창립자이자 늑대와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울프 테라피"의 개발자다. TEDx 강연자로도 참여했다.

제목 : RETHINKING SEX
가제 : 섹스, 다시 생각하라
저자 : Christine Emba
출판사: Sentinel/PRH
발행일: 2020년 여름 원고 완성 예정
분량 : 업데이트 예정
장르 : 에세이

*** 동의했지만 원치 않는 관계 –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하지만 남성들은 혼란스러워하는 회색 지대, 섹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힘든 상대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성적 행동을 강요한 사실들을 피해자들이 직접 폭로하면서 침묵했던 피해자들, 목격자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가해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꽤 많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의 상하관계로 인해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합의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도 역시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명백한 권력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성관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유형의 강압적 섹스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베이브넷(Babe.net)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익명의 여성이 유명 코미디언인 아지즈 안사리(Aziz Ansari)와의 데이트가 일생일대 최악의 악몽이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이 여성은 첫 데이트에서 안사리가 섹스를 하자고 압박했고 자신은 여러 차례 싫다는 뜻을 밝히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안사리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글은 한달 전, 처음 만나 데이트 한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원치 않았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이상한 기분 때문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 여대생이 「뉴요커」 지에 고백했던 사건과 더불어 큰 화제가 됐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왔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어 딱히 어디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으며, 하지만 명백히 불쾌하고 불행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지에서 페미니즘과 밀레니엄 세대 문화를 주로 다루는 논설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는 "섹스에 관해 다시 생각하자"는 제목으로 썼던 논설을 확장시켜 무수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쁜 섹스"의 문제를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섹스를 무조건 긍정적이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페미니즘과 포르노가 만든 왜곡된 성 인식에 절어버린 대중문화가 상대가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다.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상대와 섹스를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정치적 압박감을 느끼지만 그만큼 많은 남성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느낀 경우에도 무시해도 되는 일로 여긴다는 사실과 함께 저자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관한 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 주관적인 잣대로 이 상황을 평가하지만 그 기준은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뚤어진 경우가 많다. 저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윤리학자, 철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적 규범을 다시 분석하고, 섹스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극단적인 태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성관계 시 합의의 기준, 페미니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섹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범죄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끝없는 싸움 대신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과 현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성적 규범과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대신 믿고 배려하는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볼 문제들을 과감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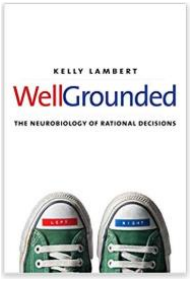
<목차>

(가제)
1부. 미국인들이 섹스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2부. 섹스에 관한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3부. 새로운 기준 –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4부. 새 기준이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것

<저자 소개>

크리스틴 엠바(Christine Emba)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행정,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워싱턴 포스트」 사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목 : WELL-GROUNDED
가제 : 확실한 근거
(부제 : 이성적 판단과 신경생물학)
저자 : Kelly Lambert
출판사: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8년 9월 25일
분량 : 312쪽
장르 : 과학(신경과학)



* **"인간의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통찰을 가벼운 톤으로 전달하는 책. 저자가 교수로서 왜 그토록 많은 상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Principles of Neural Design』의 공저자 피터 스털링**
* **"저자는 심층적이고 진지한 메시지에 솜씨 좋게 재미를 불어 넣어 뇌의 세상을 보여주고 현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알려준다." - 『Touching a Nerve』의 저자 패트리샤 처치랜드**

요즘 들어 부쩍 마약 관련 뉴스가 늘어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정국 소리를 듣던 우리 나라에 어쩌다 일명 백색 가루가 이렇게 퍼져 나갔는지 의아해한다. 이제는 연예인이나 재벌 2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약 사범으로 붙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그렇게 괴로웠길래' 저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향정신성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을 자극하는 이 불법 물질의 주된 목적은 뇌의 신경을 자극해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원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랫동안 꿈꾸던 목표를 마침내 이루는 등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나 기분 좋은 경험을 할 때 자연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인데, 인공적인 물질의 도움을 받아 그 길고 불확실한 과정을 훌쩍 뛰어 경험 없이 기분만 느끼는 셈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보상, 혹은 극히 미미한 노력으로 엄청난 결과를 바라는 이 얌체 심리는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장밋빛 예측으로 주식이나 상품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가 부여되어 투자자가 몰리는 경제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비이성적인 투기 행위, 일명 거품이라 일컫는 그 잘못된 시장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부를 꿈꾸며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비정상적인 경로로 원래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즉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 같은 비극적인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미세하고 정확한 메커니즘과 살면서 차곡차곡 쌓인 경험을 데이터로 삼아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판단하는 뇌의 기능이 잘못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설명한다. 해도 되는 것과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은 성공과 생존의 핵심인 만큼 이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진 자산이 많아도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저자는 약물 중독이나 빈곤, 혹은 과도한 특권 때문에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이 고장나면 뇌는 제대로 된 판단 기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무수한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찾고 모두가 바라는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뇌의 이 내재된 판단 능력을 보존하고, 고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저자는 "뇌 거품"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집어주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신속히 구축하는 뇌 기능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준다. 뇌의 판단 능력은 유익하고 값진 실제 경험에서 얻은 귀중한 데이터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성과만 얻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새 도전과 의미 있는 경험에 꾸준히 노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모두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누군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쩔 수 없다는 비겁한 핑계나 남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쪽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뇌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칫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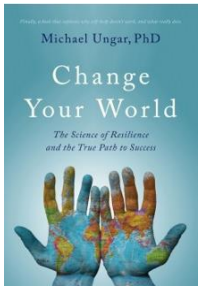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뇌의 계산기: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의 비밀
2. 뇌가 내놓는 결과물: 행동의 여러 가지 형태
3. 인간의 뇌: 부자의 수치심
4.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뇌 회로의 구축
5. 비상 대비 필터가 망가지면
6. 비상 대비 계산기의 미세한 조정: 레트, 코미디언, 3관왕을 차지한 말 주인들이 알려주는 견고한 교훈
7. 양육: 삶의 비상 사태를 다시 계산해야 할 때
8. 정신 질환 치료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 계산
9. 업무 착수: 비상 대비 계산기가 작동하게 하라
10. 비상 대비의 범위를 확장하라: 새로운 현실과 상상 속의 현실
맺음말. 번영의 재정의 - 전략적인 샴페인 거품과 인생은 살 만 하다고 정확히 인지하는 것

<저자 소개>

켈리 램버트(Kelly Lambert)는 리치몬드 대학교 행동 신경과학 교수다. 저서로는 『Lifting Depression』, 『The Lab Rat Chronicles』 등이 있다.

제목 : CHANGE YOUR WORLD
가제 : 환경을 바꿔야 성공한다
저자 : Michael Ungar
출판사: Sutherland House
발행일: 2019년 5월 15일
분량 : 256쪽
장르 : 자기계발



*** "힘든 일과 맞닥뜨렸을 때 회복과 기능,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이 혼자 외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책. 개인과 사회가 변화를 통해 얼마나 큰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세계은행 교육·제도 발전 전문가, 조엘 레이스(Joel Reyes)**

*** "기회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체성을 키우는 방법을 밀도 있는 설명으로 알려주는 지침서" – 「커커스 리뷰」**

크고 작은 기업의 성패에 관한 경영 지침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 대부분은 변화를 강조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고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 사이에서 성공하고 생존하려면 그 속도에 발맞춰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목표가 사업적인 성공이든, 건강이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든 장기적으로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유네스코, 적십자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끔찍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며 개개인마다 다른 회복력의 차이를 연구해온 저자는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이 조언에 반기를 든다. 개인의 성장은 개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아무리 인내심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해도 발전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는 최신 연구결과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를 탓하고 일이 잘못되면 희생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잘못된 인식이 성공 전략도 왜곡시켰다"고 지적한다. 신데렐라도 도와주는 요정이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저자는 가장 힘든 상황도 극복하고 바늘 구멍 같은 탈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자가 보유한 재능과 긍정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40개국의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투지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은 현실성이 없으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상세히 보여준다. 고난이 닥쳤을 때 힘없이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해결하고 생존할 방안을 찾는 사람의 차이, 즉 회복력의 차이가 투지로 좌우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결정될까? 저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개개인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12가지 요소를 소개한다. 주변 세상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체계성,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탄탄한 정체성,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세상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는 소속감, 권리와 책임감에 관한 인식, 긍정적인 사고, 신체적인 건강, 공정한 처우 등으로 구성된 이 요소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 들어오거나 운 좋은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거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가능한 요소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학교, 지역사회,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인 건강과 행복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찾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족을 넘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빠져나가는 회복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그것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회복력의 열쇠임을 보여준다.

무작정 애쓰고 견디는 것에서 관점을 돌려 자긍심과 주체성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다시 해석하고 이를 자기계발의 토대로 삼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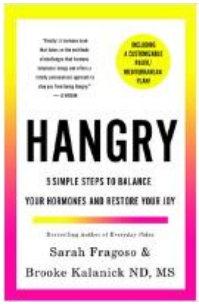
<목차>

1. 우리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2.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3. 회복력의 생물학적 특징
4. 긍정적인 사고의 문제
5. 여러분이 아는 자신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6. 일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7. 우리가 필요로 하는(그러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제도
8. 사회 정의와 성공
9.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돌아갈 때
10.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11. 자기계발을 넘어
12.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

<저자 소개>

마이클 웅가(Michael Ungar)는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 '회복력 연구센터'에서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구독자가 5 만명을 넘어선 블로그 'Nurturing Resilience'를 운영 중이며 가족문제 치료사로도 일해왔다. 저서로는 『Too Safe For Their Own Good』, 『The We Generation』 등이 있으며 13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HANGRY
가제 : 행그리
(부제 :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고 즐거움을 되찾는 5단계 기술)
저자 : Sarah Fragoso, Brooke Kalanick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건강

* **"호르몬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책이 마침내 탄생했다!" - 베스트셀러 『The Virgin Diet』의 저자 JJ 버진**
*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여성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책" - 베스트셀러 요리책 저자 미셸 탐(Michelle Tam)**

푹 쉬었다 싶은데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작은 자극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러고 왜 사나' 같은 암담한 생각이 수시로 들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편이 더 빠를 정도로 직장에 다니든, 육아에 매어 살든, 나이나 살아가는 방식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피곤에 절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별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다 그렇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 같은 별 도움도 안 되고 기분만 더 망치는 조언으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될 뿐만 아니라 딱히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다. 원시인 식단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과 자연요법 전문가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 총체적 난국의 배경은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한다. 갑상선 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들, 자가면역 기능 저하 등 다들 기분 탓으로 여기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분명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두 저자의 설명이다. 이에 두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 연구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호르몬 균형 되찾는 기술을 상세히 소개한다.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크게 좌우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의 기능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본 후 각자의 생활 패턴과 성격,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된다. 총 138장에 달하는 흑백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인 4주 실천계획도 함께 소개한 유익한 건강서다.

두 저자는 호르몬(Hormone)과 분노(Angry)를 결합하여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 피로와

짜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행그리"로 지칭한다. 두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목적은 행그리 상태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는 것, 즉 호르몬이 조화를 이루고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영향이 제대로 공급되며 사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저자는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과 평상시 먹고 운동하는 방식의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5대 습관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두 가지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과 함께 모두 똑 같은 방식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는 형태로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 알도스테론, 인슐린, 갑상선호르몬, 글루카곤, 렙틴, 그렐린, 아디포넥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까지 여성의 기분과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각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해서 왜 그와 같은 습관과 노력이 필요한지 상세한 이해를 돕는다.

늘 바쁘게 살아가느라 건강을 제대로 챙길 틈이 없는 여성들이 스트레스와 점점 악화되는 건강에 조금 더 집중해서 편안하고 가볍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1장.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해서 행복도 느끼지 못할까
2장. 스트레스로 폭발해버린 여자들
3장. 행그리를 행복으로 바꿔줄 다섯 가지 원칙
4장. 행그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5장. 운동도 제대로 하자
2부. 호르몬을 바로 잡고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개개인에게 꼭 맞는 4주 치유 계획
6장. 행그리 호르몬 바로잡기: 1주차
7장. 행그리 호르몬 퀴즈
8장. 행그리를 자극하는 탄수화물: 2주차
9장. 나만의 완벽한 운동법: 3주차
(이하 생략, 총 11장과 부록 A-D로 구성)

<저자 소개>

새라 프래고소(Sarah Fragoso)는『The Everyday Paleo』의 저자로 원시인 식단을 블로그에 최초로 소개했다. 해당 저서는 이어서 나온 요리책까지 총 5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브룩 칼라닉(Brooke Kalanick)은 공인 자연요법 의사이자 기능성 의학 의사이다. 자연요법 박사학위와 함께 침술과 한의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Ultimate You』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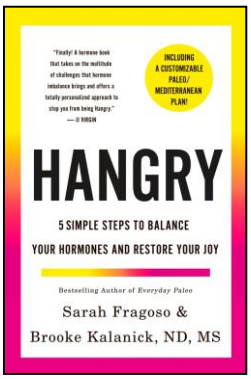
Updates:

Get ready to restore your joy, heal your hormones, and reset your metabolism in just four weeks.

HANGRY

5 Simple Steps to Balance Your Hormones and Restore Your Joy

By: Sarah Fragoso and Brooke Kalanick, ND, MS



Sarah Fragoso, the bestselling author and creator of Everyday Paleo, and Dr. Brooke Kalanick, a leading expert in functional medicine and women's health, bring you the ultimate guide to feeling your best. Hangry offers women a one-of-a-kind plan that is uniquely customizable to your individual hormonal imbalances, with special attention paid to challenges such as low thyroid, PCOS, perimenopause, menopause, and autoimmunity.

What makes you HANGRY? Are you too tired to be happy? Is your metabolism missing in action? Are you feeling overwhelmed with work and stress?

Hangry honors ALL of your hormones and each aspect of your life: food, exercise, nutrition, and lifestyle. This program will take you from feeling stressed out and frustrated—and really freaking tired!—to healthy, happy, and at home again in your body.

Join the program that's already changing lives—you will look and feel your best, slow down aging, decrease inflammation, and rediscover your joy with this one-of-a-kind customizable plan based on balancing five key hormones by using our five simple habits supported by our five mindset pillars.

Sarah Fragoso is an international bestselling author of more than five books and is the founder of the Everyday Paleo brand. She ha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s a certified strength and conditioning coach, is co-owner of JS Strength & Conditioning in Chico, CA, and holds a degree in Psychology as well as certifications in mindfulness practice. Sarah helps women around the world with her thriving online platforms as well as conducting consistently sold out nation-wide seminars and worldwide retreats. Her books include *Everyday Paleo Family Cookbook* and *Everyday Paleo Around the World*.

Dr. Brooke Kalanick, ND, MS received her doctorate in naturopathic medicine and her masters in both Chinese medicine and acupuncture from the highly acclaimed Bastyr University and has over 2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with women as a licensed naturopathic doctor and functional medicine physician. She has helped thousands of women around the world finally feel better through her online programs and one-on-one patient visits with her highly sought after expertise in female hormone imbalance, hypothyroidism, autoimmunity, PCOS, Hashimoto's, and menopause.

Praise for *Hangry*:

"Finally! A hormone book that takes on the multitude of challenges that hormone imbalance brings and offers a totally personalized approach to stop you from being Hangry." —JJ Virgin, Bestselling author of *The Virgin Diet*

"I always look to Sarah and Dr. Brooke for no nonsense practical advice on how to be the best me! They understand that no two women are the same. *Hangry* offers the first fully customizable, easy to use, and completely comprehensive guide to help women heal."
—Michelle Tam, bestselling cookbook author and creator of Nom Nom Paleo